

화해와 내일의 꿈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丘仁煥

세상은 쉬지 않고 흘러간다. 오늘이 과거가 되고 내일이 바로 오늘이 되어 불확실한 내일로 변해 간다. 하지만 세월이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톨스토이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오래 된 오늘이 없고 영원한 내일은 있을 수 없다, 오늘과 내일은 흘러가면서 변해 가고 있다. 이 변해 가는 현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새로운 현실인 오늘을 맞게 된다. 이 흘러가는 세월에 따라 부침(浮沈)하는 오늘을 소중히 하고 거기에 전력을 다하여 살아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불확실하고 신진화요 카오스의 소용돌이가, 한국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해방 후의 한국사회가 어떻게 얼마나 변화해 오고 또 변해 오고 있는가를 숙지 않고 미래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을 위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지평을 찾아 오늘에 충실할 때에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간다. 인생은 어디까지나 진행형이니 오늘은 그 어제의 도달점이요, 내일의 출발점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의 수평선을 가시화시키기 위해 오늘을 최선을 다 하여 살아간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것은 이런 불확실하고 비정한 사회에서 고아가 되기 쉽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손을 들 정도로 깜짝 놀란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데 우선 한강의 야경에 입이 벌어진다. 양안(兩岸)에 흰 불이 켜진 사이로 불기둥이 수놓은 한강의 야경에 놀라운 충격을 받는다. 불빛이 그 격조 높게 비치는 한강의 야경에 놀라는 것이다. 그 불빛에 놀라다가 쪽쪽 하늘에 치솟은 고층으로 뒤덮인 빌딩 사이를 누벼 도착한 무역센터에 와서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뿐인가. 산과 들이 조화를 이룬 시골은 물론, 최신 전자시설로 건축된 아파트에 들어가면 두 손을 들고 입을 다물지 못한다. 거기에 푸른 산과 맑은 물, 사계가 분명하여 살기에 쾌적한 나라이어서, 중동의 한 교환교수는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느냐면서 아예 귀화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지 알 수 없다. 반목과 갈등, 아집과 비타협, 극한투쟁과 무질서,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데모는 모두 그들답지 못한 행동으로 무질서하고 무능의 파국에 이르고 있다. 흐르는 세월의 궤도를 벗어나 급변하여 따라가기가 힘들다. 이진 정반합(正反合)의 상승적 발전의 역사적 진전의 궤를 벗어난 변화에 어리둥절

할 뿐이다. 한국이 어느 나라인데 이렇게 혼란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가. 모두 타협과 문제 해결의 기본을 저버린 데서 온 것이다.

한국은 서구의 5백년 걸린 산업사회를 불과 30년 만에 성취하고, 이어서 디지털의 정보사회로 들어서며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여 그 지평을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무역이 1~2억 달러요 국민소득이 80불밖에 안 되던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의 선 경제 발전 후 민주화의 국가 발전 5개년 경제계획을 거듭하여 100억 불 수출에 국민 소득 1,000불을 이루는 데 20년을 걸려 달성한 것이 1978년, 다시 재도약을 시도하여 유신체제로 곤욕을 겪은 나라가 불과 30 년만에 전자와 조선 세계 1위요, 철광 단위공장으로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6위, 항공 전투기가 양산체제에 들어가 세계 상위권으로 진입하여 한 달에 345억 불, 연간 4천억 불 수출을 하여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 되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기적을 이룬 나라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행복지수는 36위이니 선진사회 진입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과 불만 소외가 엉켜져 이렇게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며 잘 입고 내놓고 잘 먹고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선진 외국은 주말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6시 이후에는 철시하다시피 조용한데, 한국은 저녁에 불야성(不夜城)을 이루어 더 활발하니 이걸 한국의 역동적이면서도, 이혼율과 출산율이 세계 1위에 이르고 있으니 이걸 알 수 없는 현상이다. 또한 권력의 팽배와 독점이나 그 추종, 이데올로기에 편중된 문화 예술정책이나 그 수혜자와 피해자, 기업의 자유를 표방한 대형화 무차별 확대, 유산의 평등으로 가부장의 전통 사회의 붕괴와 그 갈등이 확산된 극과 극의 간극에 의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개인과 기업과 국가가 서로 상충하고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양금이 실날 같이 얇고 있다. 형제 간의 재산 싸움이나 부부 간의 갈등과 이혼이나, 근로자의 여러 형태의 기업 주와의 분쟁과 데모, 그리고 엉뚱한 시책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의 반대와 촛불 집회, 각 문화단체의 갈등과 대결, 정책 대결이 되어야 할 국회의 대결의 무능력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의 정체를 흔들고 아집의 미몽(迷夢)에서 헤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세상은 도도히 흘러 다른 나라보다 경제 위기를 제일 빨리 극복 할 것이라는 외국 평가를 받으며 무역이 계속 흑자를 내며 거리에 아파트에 차는 넘치고 있으니 이걸 한국의 저력(底力)의 표출이라고나 할까. 한국의 기술이 뒤바이유에서 최고 고층 빌딩을 건축하고 한국형 원자로 수출의 쾌거, 100조를 생산하고 이익 10조를 올린 삼성전자는 물론이요, 명동이나 테헤란로를 가 보면 이걸 불황의 어디에도 찾을 수 없게 변화하고 흥성거린다. 백화점의 진열된 많은 상품, 개량된 시장의 서민의 짚도리 손이 바빠 움직이고 있으니, 거기에는 갈등이나 대결은 보이지 않는다. 전자의 발달로 편리하고 윤택 있는 생활은 음악분수가 활기 있게 하늘로 치솟는 보라매공원만 가도 만끽할 수 있으니 우리네 서민은

그저 수신제가로 웰빙을 누리려고 애쓸 뿐이다.

갈등과 불화는 어느 사회나 있게 마련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여 화해와 질서로 문제나 사건을 풀어 선진사회로 진입하느냐에 달려 있다.

어떠세요. 이제 그만들 하시지요. 그 무엇을 위한 극한 대립으로 염치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대화를 거부하고 데모를 하고, 위원장실에서 날을 새면서 점령한 데서 야기된 혼란을 방치한 채 비정규법과 세종시 문제로 극한 대립으로 파행되고 있는 의원님들, 적자에도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임원 수당을 올리는 공기업, 사기로 순박한 서민의 등을 치는 악덕사기배, 이념을 내세운 사회혼란, 정도(正道)로 운영하지 못하고 갈등의 늪에 빠진 예술단체들, 돈이면 모든 것을 내치고 덤비는 사람들. 제발 이제 그만들 하시죠. 우리 좀 편안히 살자구요.